

# 부대 복귀하던 중령, 화재 현장 초기 진압

## 31사단 소속 정연우 중령 초동 조치로 큰불 막아

부대 복귀 도중 화재 현장을 발견한 군인이 적극적인 초동 조치에 나서 큰 불을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전남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31분에 완도군 신지면 한 민박집 입구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에 의해 29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으나 민박

집 입구와 입구 주변에 쌓아둔 가재도구가 타거나 그을렸다.

화재 당시 부대 복귀를 위해 주변을 지나던 정연우 31사단 소속 중령이 초동 조치에 나서면서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정 중령은 연기를 발견하자마자 119에 신고해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소화기 2개를 이용해 불을 껐다. 소방 당국 도착 전 초기 진압에 성공하면서 인명피



해 없이 소규모 재산 피해만 났다. 소방 당국은 정 중령의 대처 덕에

큰 불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김옥연 완도소방서장은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소화 활동으로 큰 화재를 막은 정 중령에 감사하다"며 "이번 일로 모든 분들이 화재 초기진압에 있어 소화기 등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중령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완도군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 포토뉴스



용정중 특색 교육활동, 전교생 지리산 중주 용정중학교는 지난 2일 3박 4일 동안 실시한 '사제동행 전교생 지리산 중주를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 총 14조로 편성해 황경하 교장을 포함 15명의 인솔 교사가 함께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무안소방서장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무안소방서 김용호 서장이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용호 서장은 "화재도 진압보단 예방이 중요하다"며 "불나고 후회하기엔 이미 늦은 것처럼, 마약이 출구 없는 미로처럼 애초에 들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생활개선회, 지역사회 온정의 손길 광양시 생활개선회는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쌀 100박스를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광양시 생활개선회는 2023년 광양매화축제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수제 매실빵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음료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우리쌀 쌀국수 100박스를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 광주 학교, 열띤 수업공개 및 수업참관으로 '들쭉'

### 다양성을 품은 수업, 수업공개로 꽃피우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초등 수업 활성화 정책이 선생님들의 활발한 수업공개 및 참관으로 교실 현장에서 꽃피우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초등 수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교사가 동료에게 내 수업을 보여주고 또 동료의 수업을 관찰해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초등 동학년 수업실시 ▲수업성장 인증제 ▲교과 아카데미 ▲교원수업나눔동아리 ▲수석교사 요청 수업 등 교사들이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학년 수업실시'는 동학년 간 수업공개를 통해 같은 학

교 교사들끼리 수업을 공유하고 교민을 나눈다. 이는 학교 생태계 안에서 교사가 수업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학교 문화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신의 관심 교과 및 관심 주제와 관련된 수업을 보고 싶은 교사들을 위한 교과아카데미 및 수업나눔동아리의 수업공개도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있는 과목이나 주제에 대한 수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수업참관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수업공개 일회성의 보여주기 수업이 아닌,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수업공개 문화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기본인 수업을 활성화해 학생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광주교육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 광주시, 5월의 공무원에 강은숙 팀장·김경명 주무관



(왼쪽)강은숙 복지혁신팀장, 김경명 주무관

광주시는 '5월의 공무원'으로 복지정책과 강은숙 팀장과 김경명 주무관을 선정하고,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상했다.

강은숙 팀장과 김경명 주무관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대 1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 시민의 복지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4월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지역부를 심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은숙 팀장은 "돌봄은 평범한 일상과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기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 광주·전남 주택건설협,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22곳 개보수

### 30년째 총 311개 주택 수리 '훈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사들이 국가유공자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에 나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노후주택 22가구에 대해 주거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주택건설 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째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낡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무료로 개·보수해 주고 있다. 그동안 무상으로 수리해준 주택이 총

311개 동에 달한다.

올해에도 애국지사 유족 윤모(91)씨의 광주 동구 지산동 주택을 비롯해 노후화된 주택이나 아파트 22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에는 지역주택건설업체 1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여 업체들은 지원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출입문, 방, 부엌, 마루, 화장실등의 보수공사나 창호공사, 지붕개량공사, 외부 도색,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 순천소방, 상반기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14개 기관·단체가 참석...재난 대응업무 협조 등



순천소방서는 14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관합동 이상훈련 및 상반기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 관리, 재난 대응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기관의 임무에 대해 알아보고 자원조사서를 통한 각 기관별 수행 가능한 역할에 대해 상호 공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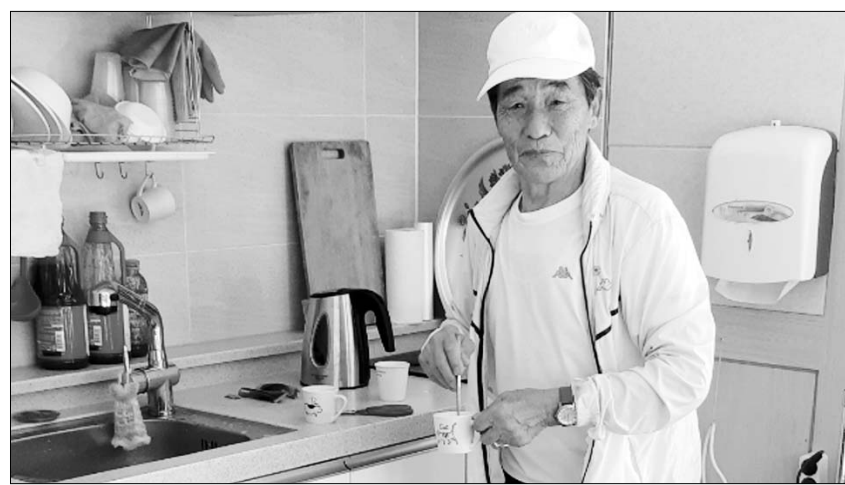
그 밖의 주요 내용은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재난 대응 업무 협조 ▲비상연락망 유지 등 협력체계 구축 ▲재난 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협조 ▲향후 긴급대응기관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등이다.

박상진 순천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성공적인 대응 여부는 현장지휘체계의 확립과 기관별 통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달려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완벽한 가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 보길 윤선도 게이트볼장 '친목 도모'

### 2021년 개장...대회 주최·출전 등 생활체육 공감



완도 보길 윤선도 게이트볼협회는 지난 2021년 개장해 지역 내 29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게이트볼 대회 주최 및 대회 출전 등 생활체육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게이트볼협회는 회원들이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는 친목의 장으로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윤선도 게이트볼 협회 이종호 회장은 "노년의 건강을 위해 즐기며 협회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삶의 활력이 되는 운동에 많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호 회장은 전남게이트볼협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완도=이두식 기자

## 광양, 주부명예기자단 매실농가 일손돕기

### 고령농가 방문, 매실 따기·선별작업 등 일손 지원



광양시 주부명예기자단은 매실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매실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과 매실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일손 돕기에는 주부명예기자 20여 명

과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해 지난 5일 진월면에 거주하는 70대 농가를 방문해 매실 따기와 매실 선별작업 지원에 나섰다.

해당 농가는 "올해는 매실 수확량이 줄어 외지 일력을 쓸 여력이 없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매실 따기와 함께 선별작업까지 해주니 한시름 놓았다"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했다.

최경순 주부명예기자단 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해마다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해중 홍보소통실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광양=조순희 기자